

## 한국과 중국 여자대학생의 은퇴태도 비교 분석

주 소 현 · 이 하 늘 · 곽 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소비자학과

### Korean and Chinese Female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s Retirement

Joo, So Hyun · Lee, Hanul · Guo, Li  
Dept. of Consumer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Korean and Chinese female college students' retirement attitude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two countries are experiencing dramatic increases in elderly population, retirement planning is a significant social issue. Even though Korea and China share similar cultural backgrounds, economic systems and governmental retirement policies have been developed in different way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compare retirement attitudes and related factors between Korean and Chinese female college students. Based on a survey with 214 female college students (130 Koreans and 84 Chines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retirement attitudes and related factors were identified. On average, Chinese female college students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s retirement than Korean students. The levels of thinking about retirement and worrying about finances in retirement were greater for Korean students than Chinese students. More Korean students anticipated that their actual retirement age will be earlier than their desired retirement age. Korean students believed that they should start retirement planning at an earlier age than Chinese students' retirement planning age. Korean students anticipated that the cost for food and housing as the major expenditure category in retirement while Chinese students anticipated cost for health care as the major expenditure category. Korean students who worry about finances in retirement, and those who anticipated that they will retire earlier than their desired age showed negative retirement attitudes when controlling other factors. Implications for retirement planning and education were presented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Key words: attitudes towards retirement,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Chinese female college students, retirement preparation

#### I. 서론

인구의 평균수명 증가와 낮은 출산율은 고령화

를 가속시킨다.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나라중의 하나로 201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1.0%

접수일: 2011년 5월 2일 심사일: 2011년 5월 10일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14일

Corresponding Author: Joo, So Hyun Tel: 82-2-3277-3099  
email: sohyunjoo@ewha.ac.kr

에 이른다(통계청 2010). 한편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나라로 2008년 노인인구가 약 1억 9천만 명을 넘었고 매년 노인인구 증가율이 800만 명에 달하며,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약 1/3인 4억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2009). 이러한 가운데 금융시장의 변화로 인한 개인 자산관리의 어려움, 지속적인 자녀교육 및 양육비 증가 문제,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전통적인 유대관계 약화 등으로 사회적, 개인적으로 은퇴와 노후설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정운영·백은영 2009; 차경옥 등 2008).

하지만, 은퇴 이후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한 경제적 준비는 생애주기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장기적인 재무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 및 교육, 내 집 마련, 학자금 대출 상환과 같은 다른 과업들에 비해 종종 재무목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2007년 한국투자자교육재단에서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사전에 은퇴대비를 하지 못한 은퇴자들 중 36% 이상이 자녀 교육비 및 결혼자금 때문에 은퇴준비를 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한국투자자교육재단 2008). 한편, 중국인은 월 소득의 45%를 저축하지만 저축하는 사람들의 65%가 본인의 은퇴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저축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37%는 저축액이 증가해야 퇴직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은퇴 준비에 대한 장기적 재무계획이 없다는 사람들이 28%에 달하였다(HSBC 2010). 은퇴준비는 개인들에게 불안의 요소가 되고 있는데 2009년 HSBC의 아시아 7개국 35-65세 성인남녀 3,56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장기저축계획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60%가 은퇴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재무계획에서 가장 두려운 위협요소로 은퇴자금 부족(61%)을 들었고 장기적인 재무목표의 1순위로 은퇴 후 생활보장(57%)을 들었다(이코노미세계 2010).

이렇게 은퇴준비의 중요성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면서 다양한 은퇴설계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의 하나인 은퇴태도에 대한 연구도 그에 속한다. 은퇴태도는

은퇴에 대한 개인의 감정으로 긍정적인 태도는 은퇴가 기다려진다거나 은퇴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로 여기는 등의 태도를 말하여 부정적인 태도는 은퇴를 생각하면 불안하다거나 은퇴가 다가오는 것이 두렵다고 느끼는 감정을 뜻한다.

Fishbein과 Ajzen(1975)에 의해서 발전된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보여주는 Theory of Reasoned Action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행동은 그러한 행동과 관련된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은퇴를 위한 준비는 은퇴에 대한 태도의 영향을 받는 행동으로 은퇴를 위한 준비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인 시점에서 은퇴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는 것은 은퇴설계의 관점에서 중요하다(정운영·백은영 2009).

지금까지 은퇴태도와 관련된 연구는 은퇴태도의 동향을 연구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찰한 연구(김연희 2005; 이주일 2003; 최성재 1989; 한정란 등 2010; 홍승후 2001)와 은퇴태도와 은퇴준비도 및 은퇴계획 등의 관련성을 고찰한 연구(배문조·전귀연 2004; 안기선·김윤경 2009; 정운영·백은영 2009; 차경옥 등 2008; 홍성희·곽인숙 2007)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은퇴태도의 수준과 영향요인(예, 연령, 은퇴 후 예상되는 경제적 사정, 교육수준, 은퇴연령, 경제상태 등)을 밝혀 왔으며 은퇴태도가 은퇴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임을 확인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김연희 2005; 이승아·한경혜 1998; 최성재 1989)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김길중 2007) 은퇴를 앞둔 중년기 이후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은퇴를 남성의 현상으로 보는 시각은 은퇴가 직업적 지위의 변화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데에서 비롯되는데 남성의 지위와 정체성이 직업을 통해 획득되는데 반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주로 가족내의 역할을 통해 획득된다는 데에서 기초한다. 그러나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적 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이제 은퇴는 점차 여성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은퇴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여성을 주체적으로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은퇴준비는 중년 성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최근에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은퇴 후 경제적 준비에 대한 관심 또한 높

아지고 있다. 한국 대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후준비 시작 시점에 대한 질문에서 ‘취업과 동시에’ 또는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한다는 대답이 각각 40.6%, 28%로 전체의 2/3를 넘어 대학생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과 인식수준이 빨라진 것으로 보고되었다(NPS국민연금News 2010). 또한 중국 무한성(武汉市) 6개 대학교의 대학생 총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노후 대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저축, 보험, 일을 통한 자기의 노력’(47.2%), ‘기업연금 및 퇴직 연금’(31.2%), ‘자녀, 배우자, 친척 등’(21.6%)의 순위로 선호하였다(张顺园·应甄 2008). 이렇게 은퇴 설계는 장기적인 재무목표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에 대한 관심이 점차 젊은 층에게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사회와 가치관의 변화는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은퇴준비 및 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향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준비하는 한국과 중국의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은퇴에 대한 태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은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이 살펴본 바로는,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여자대학생의 은퇴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는 유일한 연구이다. 한국과 중국 모두 은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은퇴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고(최현자 등 2009; HSBC 2010), 은퇴에 관한 연구가 남성 가정부양자의 준비도와 계획에 치우쳐 있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은퇴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한국과 중국은 유교 사상의 영향을 깊게 받은 국가로 유사한 역사적 전통과 동양적인 가치공유를 하면서 동일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두 나라는 근대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한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중국은 사회주의 공유체제를 채택함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문화가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두 나라의 은퇴태도를 비교하는 것은 서구와 구별되는 비슷한 특징을 가진 두 나라가 은퇴와 관련한 이슈에서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지 보여주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은퇴와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은퇴연령은 일반적으로 55세에서 65세로 남성과 여성의 은퇴연령 차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의 경우에 일반 근로자의 은퇴연령은 남성 60세, 여성 50세, 여성 지도자 55세로 정해져 있으며 위험직종의 경우는 남성 55세, 여성 45세로 정해져 있다. 은퇴이후 소득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 중국의 경우는 사회적 지원과 개인적 저축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1층에 해당하는 기본노후보험과 우리나라의 2층과 3층에 해당하는 기업보조노후보험(기업과 개인이 일정금액을 부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연금제도는 1991년부터 시작되어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우리나라보다 다소 늦게 시작하였으나 전국범위로 확대된 것은 1997년으로 1999년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국민 국민연금을 실시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百度百科 2010). 사회주의 공유방식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경우 은퇴자금의 변동성 등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해 한국 보다는 덜 민감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여자대학생들이 은퇴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은 은퇴태도가 은퇴준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두 나라의 은퇴준비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서양과 동양의 나라를 비교하는 연구가 아닌 동양의 두 나라인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은퇴태도 및 은퇴준비에 대한 한국적인 고유성을 연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은퇴태도

은퇴태도는 은퇴에 대한 개인의 특정한 반응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포함한다(최성

재 1989; Davies & Catwright 2011; Lim 2003; McGee et al. 1979; Sutinen et al. 2005; 肖洁 2007).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긍정적인 태도는 은퇴가 기다려진다거나 은퇴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로 여기는 등의 태도를 말하여 부정적인 태도는 은퇴를 생각하면 불안하다거나 은퇴가 다가오는 것이 두렵다고 느끼는 감정을 뜻한다. 은퇴태도는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에 대한 응답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하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즉, 긍정적인 태도점수가 높고 부정적인 태도점수가 낮을수록, 은퇴를 위한 준비를 더 잘하는(예를 들면 은퇴를 위한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은퇴이후의 생활계획을 하고, 은퇴이후의 생활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는 등) 것을 밝혀왔다(정운영·백은영 2009; 최성재 1989; 홍성희·곽인숙 2007).

은퇴태도는 지속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경우에 긍정적이라고 한다(McGee et al. 1979). 즉, 개인들은 은퇴이전과 은퇴이후에 급격한 생활의 질 차이를 겪지 않고 동일한 수준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우에 은퇴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은퇴태도는 네 가지 차원에서 이해되어 왔는데 Hornstien과 Wapner에 의하면 그 네 가지 차원은 은퇴를 단순히 남은 여생으로의 전환으로 보는 차원,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기로 보는 차원, 이전과 다르지 않은 연속성 상에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차원, 그리고 이전의 규칙적인 일에 대한 강제적인 중단으로 보는 차원(Davies & Catwright에서 재인용, 2011)이다. 외국의 은퇴태도에 관한 연구는 직업을 그만두는 생애전환기 '사건'으로 은퇴를 간주하는 시각을 연구한 경우(Sutinen et al. 2005)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은퇴태도를 연구한 경우(Davies & Catwright 2011; Lim 2003)로 나뉜다. 생애전환기 사건으로 은퇴를 연구한 경우는 은퇴를 일로부터의 해방으로 보는 시각으로 직업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는 은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고 따라서 은퇴태도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Sutinen et al. 2005), Lim(2003)의 경우 40세 이상

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은퇴태도를 연구한 결과 은퇴를 보는 시각이 긍정적이기도 부정적이기도 않아서 은퇴를 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사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은퇴를 기다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발표된 한국과 중국의 은퇴태도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약 60%가 은퇴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이코노미세계 2010) 중국 직장인의 88%와 퇴직자의 85%가 은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腾讯财经新闻 2008). 이와 같은 은퇴에 대한 상반된 태도는 은퇴가 누구에게나 심각한 심리사회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보편적인 사건이기보다는 개인에 따라 은퇴에 대한 지각과 적응에 차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홍성희·곽인숙 2007). 따라서 한국인과 중국인의 은퇴에 대한 지각이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은퇴과정에 미치는 요인 또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2. 은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 최성재(1989)는 은퇴예정자 총 400명을 대상으로 은퇴에 대한 태도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요인들로 현재의 경제적 상태, 퇴직 후 예견되는 경제적 상태, 건강상태, 교육수준, 퇴직 후 생활에 대한 계획 정도, 여가생활에 대한 지향도, 희망하는 퇴직연령과 현재 퇴직연령과의 차이, 실제 퇴직연령 등을 살펴보았다. 즉, 개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은퇴 후에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 사회경제적 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은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의 은퇴태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도 은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이승아 1998).

김연희(2005)는 은퇴태도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들을 크게 사회적 특성 그리고 개인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직업 유형, 일에 대한 태도와 애착, 사회적인 지위, 직무만족, 직무 스트

레스 등을 사회적 특성으로 분류하였으며 연령이나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적 수준 등을 개인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의 은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 특성과 은퇴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사회·경제적 특성

여자대학생의 은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은 연령, 가계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등을 포함한다. 최성재(1989), 김연희(2005), 홍성희·곽인숙(2007) 등은 연령을 은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혔으나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연령의 영향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는 대학생에 한정하여 은퇴태도를 연구하므로 연령에 따른 은퇴태도의 변화를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20대 초반에 비해 중반이 은퇴 후에 대비한 은퇴계획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한편 구체적인 은퇴 계획이 가능해 지므로 연령이 은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가계소득은 생활수준 및 생활양식,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규정하는 요인으로서 은퇴 후 생활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에서는 가계 소득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은퇴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배문조·전귀연 2004; 이승아 1998; 차경옥 등 2008; 홍성희·곽인숙 2007).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가계소득이 어느 정도 충분한 경우 은퇴태도가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교육수준은 직업 지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며, 교육수준과 은퇴태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김미혜 1993).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가 은퇴에 대해 지니는 태도가 긍정적일 수 있으므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은퇴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여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당사자의 은퇴태도가 긍정적일 것으로 보았다.

### 2) 은퇴관련 특성

은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은퇴관련 특성은 은

퇴를 생각해 보았는지 여부, 기대수명, 예상되는 은퇴연령,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은퇴설계 시작시기, 경제적 준비 여부, 은퇴이후 경제생활에 대한 걱정 여부, 은퇴에 대한 교육 여부, 은퇴 후 예상수입원과 주요 지출비목, 노인부양책임소재 등이 포함된다.

먼저, 은퇴를 생각해 보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은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肖洁(2007)는 청년을 대상으로 은퇴에 대한 관심을 조사한 결과, 은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56%로 나타났으며 은퇴에 대한 걱정을 한 사람은 31.9%로 밝혀졌다. 이는 张顺园과 应甄(2008)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은퇴인지에 대해 설문을 한 결과 56%가 은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고 36%가 은퇴에 대한 걱정을 한다고 발표한 결과와 유사하다.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은퇴를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은퇴태도가 긍정적일 수 있다(Sutinen et al. 2005).

예상수명은 은퇴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일반적으로, 대상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본인이 예측하는 수명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삼성경제연구소 2007). 예상수명이 길수록 은퇴 후 보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은퇴태도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연령에 대한 은퇴태도와 마찬가지로 그 영향은 부정적일수도 있고 긍정적일수도 있을 것이다.

예상은퇴연령은 최성재(1989)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은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이는 은퇴까지 남은 기간과 함께 노후준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삼성경제연구소(2007)의 조사에서는 희망하는 정년이 평균 65.4세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희망정년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하나은행과 한국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은퇴시기를 평균 62.2세, 은퇴 후 수명을 17.4년으로 예상하고 있었다(한국경제신문 재인용, 2007). 이지은(2000)의 연구에 의하면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가 10년 이상인 경우 보다 은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앞서 최성재(1989)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지로 은퇴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예상은퇴연령이 높을수록 은퇴태도가 긍정적이고 희망은퇴연령과 실제은퇴연령의 차이가 적을수록 은퇴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져 왔다.

은퇴설계 시작시기는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차경욱 등(2008)의 연구에 따르면 대상자의 52.4%가 30대를 바람직한 은퇴설계 시작시기로 생각한다고 보고하였다. 은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은퇴설계의 시작시기가 현재 연령과 가까울 것이며 이러한 성향은 은퇴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은퇴태도에 상이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경제연구소(2007)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20대의 약 43.4%가 은퇴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층에서도 은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준비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노후 대비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은퇴에 대한 기대가 높고 은퇴 후 삶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퇴이후 경제에 대한 걱정 여부는 현재의 경제상태, 은퇴를 위한 경제적 준비여부 등과 함께 은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파악되어져 왔는데 최성재(1989)의 연구에 의하면 은퇴이후 경제적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 은퇴태도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아와 한정혜(1998)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은퇴에 대해 중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은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은퇴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미국의 경우 Ekerdt와 Bosse(1982)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은퇴태도를 지닌 은퇴자들에게 은퇴교육을 실시한 결과, 이들의 은퇴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최보아와 지영숙(2004)은 은퇴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은퇴생활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인다는 은퇴교육의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이는 은퇴교육에 대한

참가 여부가 은퇴태도와 은퇴준비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임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노후를 대비하는 수단으로는 활용하는 방법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부동산, 보험, 은행예금 및 적금 순(삼성경제연구소 2007)이었으나 肖洁(2007)의 연구에서 나타난 중국의 은퇴준비 수단은 사회연금, 저축, 자녀, 상업보험, 배우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은퇴이후의 소득원은 은퇴 이후 라이프스타일의 연속성과 관련된 것으로 은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은퇴이후의 예상소득원이 자녀 혹은 국가의 보조인 경우에는 은퇴태도가 부정적일 수 있고 본인의 저축을 통한 연금이나 자산인 경우에는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은퇴 이후 예상되는 주요 소비지출비용을 통해서도 응답자의 은퇴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차경욱 등(2008)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이후 예상 생활비의 규모는 보건·의료비, 문화·교양·오락비, 식비·주거비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식비·주거비와 같은 기초생활비 보다는 은퇴 후 건강유지 및 여가생활과 관련하여 많은 돈이 필요할 것임을 예상하는 것으로 문화 및 여가에 대한 지출규모를 크게 예상하는 사람들은 은퇴 후의 생활을 남은여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간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노후부양책임소재 또한 은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김정석(2001)은 중년층이 전통적 부양태도로 여겨지는 자녀부양책임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그 대체물로 자기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는 태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肖洁(2007)의 연구에서 중국은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의 세대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부모부양(养儿防老)에 대한 역할이 여전히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할 때, 한국과 중국의 노인부양의식에 대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노후부양책임소재도 은퇴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여자대학생의 은퇴태도를 파악하고 은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 여자대학생들의 은퇴태도 현황과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은퇴준비를 돕기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여자대학생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은퇴관련 특성에 따른 은퇴태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은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A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 여자대학생과 상하이 F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상하이는 인구 1,921만명인 대도시로 중국의 경제적 중심도시이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외국 기업과 사기업이 많은 도시이며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고(2009년 가구당 연평균 소득 32,409.97위안으로 중국의 전국 도시 가구 평균의 약 1.7배에 달함) 물가와 부동산 가격도 높은 도시이다(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2010). 인구, 경제구조, 사회적인 변화 등에서 서울과 상하이는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7일간 진행되었는데 한국은 총 142부, 중국은 총 100부의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배포하였으나 부실 기재되거나 분석에 용이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한국과 중국의 각 대학교를 중심으로 여학생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편의표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은 총 130부, 중국은 총 84부 전체 21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연구대상인 한국과 중국 여자대학생의 사회·경제적 특성, 은퇴에 대한 기대 및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사회·경제적 특성으로는 연령(만

나이), 월평균 가계소득(범주), 부모교육수준(범주)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이 은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은퇴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지 여부, 은퇴 이후 경제상황에 대한 걱정 여부, 기대수명, 예상하는 은퇴연령, 희망하는 은퇴연령,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은퇴설계 시작 시기, 은퇴교육여부, 경제적 준비 여부, 은퇴 후 예상수입원, 은퇴 후 주요 예상 지출비목, 노인부양책임소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예상하는 은퇴연령과 희망하는 은퇴연령은 동일한 경우와 차이가 있는 경우로 나누었으며 차이가 있는 경우는 다시 예상은퇴연령이 높은 경우와 예상은퇴연령이 낮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노인부양책임소재는 노후의 부양책임이 주로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본인, 자녀, 국가와 사회, 배우자와 친척, 기타의 응답 중에서 고르도록 하였다. 은퇴태도는 최성재(1989)의 척도를 기초로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은퇴태도에 포함된 질문은 총 6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은퇴태도 문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은퇴가 기다려진다, 은퇴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은퇴가 다가오는 것은 두렵다 등의 은퇴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문항마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부정적인 문항을 역코드하여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은퇴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은퇴태도 측정도구의 문항간의 내적일치도를 검증하기 위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의 값은 한국 0.81, 중국 0.67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국 여자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은퇴관련 변인, 은퇴태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 여자대학생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은퇴관련 변인에 따른 은퇴태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 Chi-Square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은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응답자의 연령은 평균 21.33세, 한국은 21.18세, 중국은 21.56세로 나타났으며 이를 20대 전과 후로 구분하였을 때, 20세 이하 37.9%, 21세 이상 62.1%로 구성되었다. 연령 분포는 한국이 20세 이하가 41.5%, 21세 이상이 58.5%이고 중국은 각 32.1%, 67.9%로 나타났다.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한국과 중국 모두 가장 높은 소득 구간인 500만원 이상(8000元 이상 ≍ 1,366,880원)의 소득분포가 가장 많았고, 300-400만원(4000-6000元 ≍ 683,440-1,025,160원)이 다음으로 많았으며, 400-500만원(6000-8000元 ≍ 1,025,160-1,366,880원), 200-300만원(2000-4000元 ≍ 341,720-683,440원), 100만원 이하(2000元 이하 ≍ 341,720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대학생들의 가계소득분포는 한국과

중국 모두 소득이 다소 높은 가계를 포함하고 있었다. 한국과 중국 전체의 아버지 학력에 대해서는 40.2%가 대졸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고졸(22.9%), 대학원 이상(19.6%), 중졸 이하(9.8), 전문대졸(7.5%)의 순위로 나타났다. 한국의 아버지 학력은 대졸이 46.9%인데 비하여, 중국의 아버지 학력은 고졸이 31.0%로 가장 많았고 대졸이 29.8%로 2위를 차지했다. 한국과 중국 전체의 어머니 학력은 전체의 37.4%가 대졸이고 고졸(27.6%), 중졸 이하(15.0%), 전문대졸(12.6%), 대학원 이상(7.5%)의 순위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대졸이 46.2%인 반면에 중국은 중졸이 34.5%로 차이가 나타났다.

#### 2. 한국과 중국 여자대학생의 은퇴관련 변인 특성과 은퇴태도

한국과 중국 여자대학생의 은퇴관련 변인 특성과 은퇴태도는 Table 2와 같다. 먼저 은퇴태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17.91점으로 중간 값인 15점을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		
Variables	Category	Total (n=214)	Korean (n=130)	Chinese (n=84)
Age	20 and under	81(37.9)	54(41.5)	27(32.1)
	21 and over	133(62.1)	76(58.5)	57(67.9)
	Mean(SD)	21.33(1.84)	21.18(1.76)	21.56(1.93)
Monthly household income <sup>1)</sup> (10,000 Korean won)	200 and less (2000元 and less)	20(9.3)	4(3.1)	16(19.0)
	201-300 (2001-4000元)	32(15.0)	13(10.0)	19(22.6)
	301-400 (4001-6000元)	57(26.6)	39(30.0)	18(21.4)
	401-500 (6001-8000元)	45(21.0)	31(23.8)	14(16.7)
	501 and over (8001元 and over)	60(28.0)	43(33.1)	17(20.2)
Father's education level	less than middle school	21(9.8)	2(1.5)	19(22.6)
	high school graduate	49(22.9)	23(17.7)	26(31.0)
	two-year college graduate	16(7.5)	3(2.3)	13(15.5)
	college graduate	86(40.2)	61(46.9)	25(29.8)
	graduate school	42(19.6)	41(31.5)	1(1.2)
Mother's education level	less than middle school	32(15.0)	3(2.3)	29(34.5)
	high school graduate	59(27.6)	43(33.1)	16(19.0)
	two-year college graduate	27(12.6)	9(6.9)	18(21.4)
	college graduate	80(37.4)	60(46.2)	20(23.8)
	graduate school	16(7.5)	15(11.5)	1(1.2)

1) 2000元 ≍ 340,000 Korean won based on exchange rate (2010. 12. 06)



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은퇴에 대하여 보통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자대학생의 은퇴태도 평균은 16.23점임에

비하여 중국 여자대학생의 은퇴태도 평균은 20.51점으로 중국여자대학생의 은퇴태도가 한국 여자대학생에 비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Variables related with retirement attitudes

Variables		Category	Total (n=214)	N(%)	
				Korean (n=130)	Chinese (n=84)
Retirement attitude score (SD)			17.91(4.40)	16.23(4.02)	20.51(3.67)
				$t/\chi^2$	
				61.888***	
Thought about retirement	yes		133(62.1)	91(70.0)	42(50.0)
	no		81(37.9)	39(30.0)	42(50.0)
				8.677**	
Considering financial difficulties after retiring	yes		131(61.2)	96(73.8)	35(41.7)
	no		83(38.8)	34(26.2)	49(58.3)
				22.256***	
Anticipated life expectancy	60s		6(2.8)	4(3.1)	2(2.4)
	70s		40(18.8)	20(15.4)	20(24.1)
	80s		103(48.4)	63(48.5)	40(48.2)
	90s		35(16.4)	28(21.5)	7(8.4)
	100s		29(13.6)	15(11.5)	14(16.9)
				8.479	
Anticipated and desired retirement age	desired age > anticipated age		91(42.5)	73(56.2)	18(21.4)
	desired age = anticipated age		75(35.0)	39(30.0)	36(42.9)
	desired age < anticipated age		48(22.4)	18(13.8)	30(35.7)
				27.756***	
When to start retirement planning	30 and under		28(13.1)	25(19.2)	3(3.6)
	30s		91(42.5)	74(56.9)	17(20.2)
	40 and over		95(44.4)	31(23.8)	64(76.2)
				57.208***	
Retirement saving	yes		28(13.1)	9(6.9)	19(22.6)
	no		186(86.9)	121(93.1)	65(77.4)
				11.050**	
Retirement education	yes		9(4.2)	6(4.6)	3(3.6)
	no		205(95.8)	124(95.4)	81(96.4)
				0.138	
Retirement income source	personal savings		123(65.4)	72(63.7)	51(68.0)
	employer sponsored savings		40(21.3)	27(23.9)	13(17.3)
	social security and pension		25(13.3)	14(12.4)	11(14.7)
				1.214	
Major expenditure in retirement	food and housing		75(35.2)	63(48.8)	12(14.3)
	health care		78(36.6)	37(28.7)	41(48.8)
	leisure and recreation		60(28.2)	29(22.5)	31(36.9)
				26.634***	
Elderly care responsibility	self		136(64.2)	94(72.9)	42(50.6)
	children		23(10.8)	3(2.3)	20(24.1)
	society, government		53(25.0)	32(24.8)	21(25.3)
				25.972***	

\*p<.05, \*\*p<.01, \*\*\*p<.001

대상자 전체의 62.1%가 은퇴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고 37.8%가 생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의 70%, 중국의 50% 여자대학생이 은퇴에 대하여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은퇴 후 경제적 문제에 대해 61.2%의 응답자가 이를 걱정한 반면, 38.8%가 걱정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은 걱정한다는 응답자가 73.8%인 반면 중국은 41.7%로 한국의 여자대학생이 은퇴이후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더욱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수명은 전체의 48.4%가 80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70대 18.8%, 90대 16.4%, 100세 이상 13.6%, 60대 2.8%의 순이었다. 희망 은퇴연령과 예상 은퇴연령의 차이를 보면 42.5%의 응답자는 희망 은퇴연령이 예상 은퇴연령보다 높았으며 22.4%는 희망 은퇴연령보다 예상 은퇴연령이 더 높았다. 한국은 56.2%의 응답자가 예상 은퇴연령에 비해 희망하는 은퇴연령이 더 높았으나 중국의 경우는 42.9%의 희망 은퇴연령과 예상 은퇴연령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은퇴 준비시기에 대해 44.4%의 응답자가 40대 이후, 42.5%는 30대, 42.5%는 30대 이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은 은퇴준비시기로 30대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6.9%로 적정 은퇴 준비시기를 40대로 응답한 사람이 76.2%인 중국에 비해 더 빨리 은퇴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준비 여부에 대해 '준비를 하지 않는다'가 86.9%, '준비를 한다'가 13.1%로 준비를 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교육 여부는 대부분의 응답자(95.8%)가 은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 모두 은퇴 후 주요 생활비를 조달할 수입원 1위는 개인저축/개인연금(한국63.7%, 중국 68.0%), 2위는 직장퇴직금/연금(한국23.9%, 중국 17.3%), 3위는 국민연금/사회보조금(한국12.4%, 중국14.7%)의 순위로 나타났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삼성경제연구소 2007; 肖洁 2007)에서 한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은퇴 후 예상 수입원 1순위로 국민연금을 꼽은 것과는 다르게 나

타났다.

은퇴 후 주요 예상 지출비목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보건의료비(36.6%), 식비·주거비(35.2%), 문화·교양·오락비(28.2%)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식비·주거비가 48.6%로 나타난 반면 중국은 보건·의료비가 48.8%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차경옥 등(2008)의 연구에서는 보건·의료비, 문화·교양·오락비, 식비·주거비 순으로 나타난 것과 불일치하였다.

노후부양에 대한 책임소재는 64.2%의 응답자가 '본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국가와 사회'(25%), '자녀'(10.8%)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본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2.9%로 '자녀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에 반해 매우 높았다. 중국도 50.6%의 응답자가 '본인'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한국과 중국의 응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노후부양의 책임에 대한 결과는 한국의 경우, 김정석(2001)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반면 중국의 결과는 肖洁(2007)의 연구에서 밝혀진 노인부양책임을 '자녀'로 응답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한국과 중국 여자대학생 모두 노인부양책임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3. 한국과 중국 여자대학생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은퇴관련 변인에 따른 은퇴태도

한국과 중국 여자대학생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은퇴관련 변인에 따른 은퇴태도의 차이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 여자대학생의 은퇴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은 부모의 교육, 은퇴 후 경제적 걱정 여부, 희망 은퇴연령과 예상 은퇴연령의 차이, 은퇴 준비시기, 경제적 준비 여부, 은퇴 후 주요 예상 지출 비목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 소득, 은퇴를 생각해 보았는지 여부, 예상 수명, 은퇴 교육 여부, 은퇴 후 주요 예상 생활비, 노후 부양책임은 은퇴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의 여자대학생의 배경 차이를 고려할 때 관련변인에 따른 은퇴태도의 차이를 한국

Table 3. Retirement attitudes scores based on background characteristics

Variables		Total (n=214) M(SD)	Korean (n=130) M(SD)	Chinese (n=84) M(SD)
		t/F	t/F	t/F
Age	20 and under	18.04(4.41)	16.52(4.18)	21.07(3.12)
	21 and over	17.84(4.42)	16.03(3.92)	20.25(3.89)
		.325	.686	.967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Korean won)	200 and less (2000元 and less)	19.95(4.01)	19.25(4.35)	20.13(4.05)
	201-300 (2001-4000元)	18.06(4.70)	14.92(4.15)	20.21(3.82)
	301-400 (4001-6000元)	17.51(3.98)	16.18(3.62)	20.39(3.20)
	401-500 (6001-8000元)	18.18(4.01)	17.35(3.92)	20.00(3.70)
	501 and over (8001元 over)	17.33(4.94)	15.58(4.23)	21.76(3.70)
		1.511	1.839	.635
Father's education level	less than middle school	19.62(3.96)	16.00(1.41)	20.00(3.96)
	high school graduate	18.73(4.66)	16.39(4.29)	20.81(3.99)
	two-year college graduate	20.75(2.91)	20.67(3.51)	20.77(2.92)
	college graduate	17.43(4.23)	16.11(3.77)	20.64(3.56)
	graduate school	16.00(4.25)	16.00(4.30)	16.00(0.00)
		5.539**	0.967	.525
Mother's education level	less than middle school	20.28(3.98)	15.00(2.00)	20.83(3.73)
	high school graduate	17.37(4.52)	16.30(4.13)	20.25(4.36)
	two-year college graduate	19.44(4.18)	16.44(3.84)	20.94(3.56)
	college graduate	17.03(3.94)	16.18(3.91)	19.55(2.87)
	graduate school	17.00(5.45)	16.33(4.92)	27.00(0.00)
		4.622**	.082	1.282
Thought about retirement	yes	17.92(4.54)	16.18(3.87)	21.71(3.46)
	no	17.89(4.21)	16.36(4.40)	19.31(3.50)
		.058	.056	10.823**
Considering financial difficulties after retiring	yes	16.98(4.65)	15.30(3.77)	21.57(3.62)
	no	19.39(3.6)	18.85(3.57)	19.76(3.54)
		-4.275***	22.861***	5.27*
Anticipated life expectancy	60s	18.17(4.26)	16.75(4.03)	21.00(4.24)
	70s	18.33(4.43)	16.10(4.12)	20.55(3.59)
	80s	18.07(4.52)	16.10(3.86)	21.18(3.68)
	90s	16.46(4.32)	15.54(4.23)	20.14(2.34)
	100s	18.28(3.97)	18.13(4.16)	18.43(3.92)
		1.133	1.090	1.519
Desired and anticipated retirement age	desired age > anticipated age	15.62(3.86)	14.82(3.43)	18.83(3.90)
	desired age = anticipated age	19.03(4.15)	17.41(4.06)	20.78(3.53)
	desired age < anticipated age	20.52(3.65)	19.39(3.73)	21.20(3.49)
		29.305***	14.059***	2.608
When to start retirement planning	30 and under	16.07(4.40)	15.40(4.06)	21.67(3.21)
	30s	17.54(4.20)	16.72(3.77)	21.12(4.18)
	40s and over	18.81(4.43)	15.74(4.52)	20.30(3.57)
		4.915**	1.306	0.485

Table 3. Retirement attitudes scores based on background characteristics

Variables		Total (n=214) M(SD)	Korean (n=130) M(SD)	Chinese (n=84) M(SD)
		t/F	t/F	t/F
Retirement savings	yes	19.71(4.41)	16.44(4.10)	21.26(3.72)
	no	17.64(4.36)	16.21(4.04)	20.29(3.65)
		2.346*	.027	1.032
Retirement education	yes	18.0(3.32)	16.83(2.99)	20.33(3.06)
	no	17.91(4.46)	16.20(4.07)	20.52(3.70)
		.062	.140	.007
Retirement income source	personal savings	18.02(4.25)	16.50(3.85)	20.18(3.88)
	employer sponsored savings	17.50(5.12)	15.59(4.50)	21.46(4.03)
	social security and pension	18.0(3.87)	16.07(3.58)	20.45(2.73)
		.220	.523	.602
Major expenditure in retirement	food and housing	16.65(4.13)	15.89(3.81)	20.67(3.52)
	health care	17.73(4.38)	15.57(4.36)	19.68(3.40)
	leisure and recreation	19.62(4.25)	17.55(3.64)	21.55(3.89)
		8.153***	2.378	2.375
Elderly care responsibility	self	17.76(4.43)	16.54(4.05)	20.50(4.06)
	children	19.61(3.96)	15.67(1.53)	20.20(3.89)
	society, government	17.32(4.32)	15.19(3.94)	20.57(2.46)
		2.290	1.399	.061

\*p&lt;.05, \*\*p&lt;.01, \*\*\*p&lt;.001

과 중국 여자대학생 각각의 집단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관련변수에 따른 은퇴태도의 차이가 한국과 중국 여자대학생 집단에서 상이하게 나타났다. 한국 여자대학생의 경우 은퇴 후 경제적 걱정 여부, 희망은퇴연령과 예상은퇴연령의 차이 등에 따라서 은퇴태도가 다르게 나타난 반면, 중국 여자대학생은 은퇴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지 여부, 은퇴 후 경제적 걱정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먼저 한국 여자대학생의 경우 은퇴 후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걱정을 하지 않는 대학생이 걱정을 하는 대학생에 비해 은퇴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걱정을 하지 않는 집단일수록 경제적 자신감이 높고 이러한 자신감이 긍정적인 은퇴태도 형성과 연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희망 은퇴연령과 예상 은퇴연령의 차이에서는 희망 은퇴연령보다 예상 은

퇴연령이 더 높을수록 은퇴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은퇴연령보다 예상 은퇴연령이 높은 경우, 대상자는 오랫동안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라 경제적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퇴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 여자대학생의 경우에는 은퇴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은퇴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여자대학생의 경우 은퇴에 대한 관심이 긍정적인 은퇴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고령화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중국의 젊은 층에 대한 은퇴교육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반면, 은퇴이후 경제적인 상황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중국여자대학생의 은퇴태도가 그렇지 않은 여자대학생에 비해 긍정적이라

는 결과는 중국의 여자대학생들에게는 은퇴이후의 삶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4. 대학생의 은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대학생의 은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학생의 은퇴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상관관계를 실시하였으며,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변수들 간에 상관이 높은 부모의 학력( $r=.698, p=.000$ ) 중에서 어머니의 학력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은퇴고려 여부, 은퇴 후 경제적 걱정, 희망과 예상 은퇴연

Table 4. Factors influencing retirement attitudes

	Total (n=213)		Korean (n=130)		Chinese (n=83)	
	b	$\beta$	b	$\beta$	b	$\beta$
Nationality (Korea=1)	-3.419***	-.380				
Age	.428	.047	1.021	.126	1.111	.141
Household income	-.095	-.028	-.467	-.130	.152	.059
Father's education	-.187	-.020	-.503	-.049	-.144	-.020
Thought about retirement (yes=1)	1.514*	.167	1.035	.118	1.739	.239
Considering financial difficulties after retiring (yes=1)	-1.018	-.113	-3.296***	-.361	1.822	.246
Anticipated life expectancy	-.003	.000	.099	.023	-.309	-.088
Retirement age (desired<anticipated)						
desired > anticipated	-3.480***	-.392	-4.223***	-.523	-2.873*	-.325
desired = anticipated	-1.295	-.141	-2.266*	-.259	-1.367	-.185
When to start retirement planning (30s)						
Less than 30	-1.009	-.078	-.955	-.094	.257	.013
40 and over	-1.099	-.124	-.622	-.066	-.773	-.089
Retirement saving (yes=1)	.838	.064	.971	.061	.375	.042
Retirement education (yes=1)	.212	.010	1.303	.068	.161	.008
Retirement income source (personal savings)						
Employer sponsored	.289	.026	-.405	-.041	.329	.033
Social security, pension	.299	.022	.406	.031	-.953	-.089
Major retirement expenditure (leisure, recreation)						
Food, housing	-1.115	-.121	-1.353	-.169	-1.173	-.113
Health care	-1.164	-.128	-.990	-.111	-1.488	-.204
Elderly care responsibility (self)						
children	-.140	-.010	-.080	-.009	.481	.056
society, government	-.451	-.044	-.955	-.094	.267	.032
Constant	23.190		23.324		21.605	
R <sup>2</sup> (Adj-R <sup>2</sup> )	.388(.328)		.359(.255)		.296(.098)	
F	6.438***		.3.453***		1.496	

( )= reference category

\* $p<.05$ , \*\* $p<.01$ , \*\*\* $p<.001$

령 차이, 은퇴준비 시기, 경제적 준비여부, 은퇴교육 여부, 은퇴 후 주요 예상 생활비, 은퇴 후 주요 예상 지출 비목, 노후부양 책임을 가변수화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적, 은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여부, 희망과 예상 은퇴연령 차이는 은퇴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회귀식의 설명력은 39.1%로 나타났다 은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경우와 한국 대학생에 비해 중국 대학생일수록 은퇴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희망과 예상은퇴연령 차이에서는 희망은퇴연령이 예상은퇴연령보다 높은 집단이 희망은퇴연령이 예상은퇴연령보다 낮은 집단에 비해 은퇴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예상은퇴연령과 희망은퇴연령의 차이, 국적, 은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여부의 순으로 은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은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은퇴 후 경제적 걱정, 희망과 예상은퇴연령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의 설명력은 33.2%로 나타났다. 은퇴 후 경제적 걱정을 하지 않을수록 은퇴태도는 긍정적이었으며, 희망과 예상은퇴연령 차이에서는 희망은퇴연령이 예상은퇴연령보다 높은 집단과 희망은퇴연령과 예상은퇴연령이 같은 집단이 희망은퇴연령이 예상은퇴연령보다 낮은 집단보다 은퇴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가 은퇴태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희망하는 은퇴연령보다 예상은퇴연령이 낮은 경우가 은퇴태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다음은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걱정, 그리고 희망은퇴연령과 예상은퇴연령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대학생 은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희망과 예상은퇴연령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여자대학생 214명을 대상으로 은퇴태도를 조사하고, 은퇴관련 변인

에 따른 은퇴태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은퇴태도는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이며 은퇴태도에 따라서 은퇴준비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음에도(정운영·백은영 2009) 젊은층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은퇴태도에 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고령화 및 은퇴문제가 단지 한국에서만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아님에도 한국의 상황과 다른 나라의 상황을 비교한 연구도 많이 수행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여자대학생들의 은퇴태도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비슷한 전통적배경을 가진 두 나라의 은퇴태도 차이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한국의 고유한 문제점 혹은 한국과 중국의 은퇴관련 이슈에서의 공통점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대학생의 은퇴태도 점수는 30점 만점에 16.23인 반면, 중국 대학생의 은퇴태도 점수는 20.51로 한국보다 긍정적이었다. 이는 사회주의 공유체제를 채택한 중국의 경우, 자본주의 시장체제인 한국에 비해 토지·공장·철도·광산 등 주요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여 정부의 관리 하에 집중·통제하는 ‘집산주의’ 체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 시장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는 한국에 비해 중국은 정부 집중 통제 국가이므로 해외의 경제상황이 중국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사람들은 해외경제 동향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적은 편이다. 이러한 특성이 중국인의 긍정적인 은퇴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은퇴관련 변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한국과 중국의 여자대학생은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의 여자대학생이 중국의 여자대학생보다 은퇴이후 생활비에 대하여 걱정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예상되는 은퇴연령을 희망하는 은퇴연령보다 낮게 생각하고, 은퇴 후 주요지출 비목으로는 식비와 주거비를 꼽는 등 은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한국의 매체가 은퇴를 다소 불안한 미래로 보고하는 경향이 많은 것에 의한 현상일 수도 있

으며 취업과 진로에서 경제적인 준비에 대한 부담감과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려는 라이프스타일 차이에 의한 현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은퇴준비를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의식(한국 여자대학생의 경우는 30대, 중국 여자대학생의 경우는 40대에 은퇴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은퇴설계의 조기 실행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여자대학생들의 은퇴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을 경감시키기 위한 은퇴설계에 대한 정보와 실행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에 대한 태도가 다른 두 나라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은퇴설계 및 교육 프로그램이 다르게 개발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두 나라 모두 단순히 서구의 은퇴설계 및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여자대학생들의 은퇴관련 변수에 대한 태도는 기존에 조사된 성인층의 은퇴관련 태도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다. 특히, 은퇴이후의 주된 소득원에 대하여 성인층은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응답을 한 반면, 본 연구에서 조사된 여자대학생들은 한국과 중국 모두 개인적인 저축이 주된 소득원천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태도는 은퇴이후의 노후부양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과 연관된다. 현재 한국과 중국 모두 여자대학생들은 은퇴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인식을 긍정적인 관심으로 발전시켜서 은퇴설계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은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은퇴 후 경제적 걱정을 하지 않는 대학생은 경제적 걱정을 하는 대학생에 비해 은퇴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또한, 희망하는 은퇴연령보다 예상되는 은퇴연령이 높은 경우에 은퇴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즉, 은퇴이후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예측이 여자대학생의 은퇴태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

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은퇴설계가 재무적인 측면에 치우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은퇴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에는 재무적인 것 뿐 아니라 비재무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여자대학생을 위한 은퇴교육에는 은퇴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은퇴연령에 대한 여자대학생들의 예측과 그에 따른 은퇴태도는 예측되는 은퇴연령이 직업선택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여자대학생들에게 국한되는 결과이므로 중국 여자대학생들의 은퇴태도와 관련된 변수를 파악하려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은퇴태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편의 표집을 한 제한된 수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탐색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한국과 중국 여자대학생의 은퇴태도와 관련된 다양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대학생의 경우, 서울과 비슷한 경제적 특성을 지닌 상하이 지역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각 지역별 차이가 큰 중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뿐만 아니라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은퇴태도를 살펴보고 성별, 학년별, 계열별의 차이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은퇴관련 변인이 은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심리적, 문화적 변수를 탐색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김길중(2007) 재무설계사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혜(1993) 노년을 위한 퇴직준비교육 모형의 개발. 한국노년학회지 13(2), 15-29.
- 김연희(2005) 중년기 남녀 직장인의 은퇴에 대한 태

- 도와 노화수용 : 자기애성향과 개방성향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석(2001) 노후부양 주체로서의 노인, 가족, 사회, 국가의 역할: 중년층의 노후부양태도와 준비실태를 중심으로.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배문조·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89-102.
- 삼성경제연구소(2007) 소비자태도조사 2007 4/4분기 부가조사: 노후대비에 대한 가계조사.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안기선·김윤경(2009) 산업체 근로자들의 은퇴준비도와 은퇴태도간의 관계. 대한케어복지학 12, 113-130.
- 이승아(1998) 중년기 직장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계획.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아·한경혜(1998) 중년기 직장 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 대한가정학회지 36(5), 125-135.
- 이주일(2003) 기업구성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준비 교육 요구. 한국심리학회지 16(1), 57-79.
- 이지은(2000)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 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코노미세계(2010) 한국인 '저축대비 은퇴 불안' 아시아 최고 수준. (2011. 2. 15). <http://www.economysegye.com/Articles/view.html?aid=20100318002172&cid=711702000000>
- 정운영·백은영(2009) 은퇴에 대한 인식, 은퇴태도와 은퇴준비 행동의 인간관계 분석. 사회보장연구 25(2), 115-139.
- 차경옥·박미연·김연주(2008) 20, 30대 임금근로자의 은퇴재무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1), 149-163.
- 최성재(1989) 퇴직예정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생활전망의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창간호, 47-65.
- 최보아·지영숙(2004) 은퇴자의 생활설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47-61.
- 최현자·주소현·김민정·김정현(2009) 한국의 은퇴준비지수산정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0(3), 189-214.
- 통계청(2010). 2010 고령자통계. 서울: 통계청.
- 한국투자자교육재단(2008) 2007 펀드투자자 조사 요약본. 서울: 한국투자자교육재단.
- 한정란·안경실·오병철(2010) 중년 직장 남성의 직업 및 퇴직에 대한 태도. 한국노년학회지 30(2), 599-613.
- 홍성희·곽인숙(2007)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92-94.
- 홍승후(2001) 프로선수의 은퇴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6(1), 709-726.
- 한국경제신문(2007) 직장인 60% 은퇴준비 못하고 있다. (2010.11.28).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70369961>
- NPS국민연금News(2010)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한 국민연금. (2010. 11. 30). <http://news.nps.or.kr/ewspaper/articleview.php?master=&aid=559&ssid=3&mvid=57>
- Davies E, Catwright S(2011) Psychological and psychosocial predictors of attitudes to working past normal retirement age. Employee Relations 33(3), 249-268.
- Ekerdt D, Bosse R(1982) Change in self-reported health with retir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15(3), 213-223.
- Fishbein M,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Lim V(2003) An empirical study of older workers' attitudes towards the retirement experience. Employee Relations 25(2), 330-346.
- McGee M, Hall III. J, Lutes-Dunckley C(1979)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towards retirement. The Journal of Psychology 101, 15-18.
- Sutinen R, Kivimaki M, Elovainio M, Forma P(2005) Associations between stress at work and attitudes toward retirement in hospital physicians. Work & Stress 19(2), 177-185.
- 百度百科(2010) 养老金制度. (2011.05.26). <http://baike.baidu.com/view/2180484.html>
- 张顺园·应甄(2008) 在校大学生对养老方式的预期态度初探-以武汉市六所高校的调查为例. 商品储运与养护-教育研究 30(7), 151-153.
-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2009) 中国统计年鉴2009-第五次人口普查. 北京: 中国统计出版社.
-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2010) 中国统计年鉴2010. 北京: 中国统计出版社.
- 肖洁(2007) 城市具名养老方式选择的代际比较-基于认知, 情感, 行为倾向角度的分析. 市场人口分析 13(1), 73-80.
- 腾讯财经新闻(2008) 中国人对退休退休准备程度有待提高. (2011. 1. 23). <http://finance.qq.com/a/20080423/002023.htm>
- HSBC(2010) 汇丰保险调查报告. 香港上海汇丰银行. (2011. 2.8). [http://www.hsbcinsurance.com.cn/1/PA\\_1\\_083Q9FFKG80E20RA9Q0000000/content/jv\\_pws/about\\_us/news/images/press\\_release20100309\\_CN.pdf](http://www.hsbcinsurance.com.cn/1/PA_1_083Q9FFKG80E20RA9Q0000000/content/jv_pws/about_us/news/images/press_release20100309_CN.pdf)